

## 목회자의 성폭력 원인과 방지 대책

박기영\*

### 국문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을 고찰하고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경각심을 갖게 해 한국교회 목회자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그 중심에는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목회자의 성폭력이 발생할 때 기독교계는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목회자의 성폭력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교회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연구자는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목회자 성폭력 관련 자료와 문헌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의 실태와 그 후유증을 다루었다. 본문에서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을 목회자의 세속주의 및 심리적 요인, 가부장적 교회구조와 영적 권위의 남용, 성경의 자의적 해석과 오용, 기독교 윤리 덕목의 왜곡, 교단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법령의 미비 등으로 보았다. 목회자 성폭력 방지 대책은 영성적 측면, 교육적 측면, 목회상담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가 각 교단 목회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되어 교회 내 목회자 성폭력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목회자, 성폭력, 목회자의 성폭력, 성폭력 원인, 성폭력 대책

-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24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6일
  -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성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2019년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은 해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처럼 목회자들이 돈과 성(性)문제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야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교계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뉴스투데이, 2017.1.17).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그 중심에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목회자의 성(性)적인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 특히 교회 내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운동(Me Too movement)’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정도로 성폭력 근절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런 와중에 2018년 4월 11일에는 만민중앙교회 담임목사의 성폭력 의혹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미디어 펜, 2018.4.11). 그 해 11월 6일에는 인천교회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4명이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저희는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우려했던 ‘미투운동’이 교회 청소년들에 의해 노출되었다(연합뉴스, 2018.11.6). 목회자의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범죄이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한국교회 부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의 성폭력을 근절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여성신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왔다(한국염, 1999). 기독교 여성상담소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목회자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 왔고, 다양한 피해사례 발굴뿐만 아니라 공청회, 법적투쟁, 상담 등을

병행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 오고 있다(정희성, 201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목회자 성폭력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해 왔으며, 이제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떠올랐다. 다행스럽게 최근 일부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과 관련된 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리고, 교단 현장에 목회자 성범죄에 관련된 조항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에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먼저 ‘교회 내 성폭력’을 정의하고,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의 실태와 그 영향력을 먼저 다루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을 주로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교회 조직 및 신학적, 성경적 왜곡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성폭력 목회자의 세속주의 및 개인 심리적 측면과 가정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제정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 방지 대책을 영성적 측면, 교육적 측면, 목회상담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II. 펴는 글

### 1.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와 실태

성폭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性)을 매개로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신학협회가 정의하는 ‘교회 내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목회자가 힘의 남용을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이라고 보았다(김상임, 2003).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교회 내 성폭력’을 남성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를 남용하여 여성 성도에게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2015)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주제로 한 ‘교회 성폭력의 현실’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면서, 검찰청 통계를 인용했는데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별 성범죄자 수는 천주교신자 522건, 불교신자 1,405건, 개신교신자가 2,170건이라고 했다. 또한 목사는 전문직업군 중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군 1위라고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관 토론회(2016)에서도 “지난 5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국염, 2016). 이 통계는 형사입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고, 은폐된 종교지도자의 성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선정한 2017년 종교분야 10대 이슈에서도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다룰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를 다섯 번째로 꼽았다(문화선교연구원, 2017).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대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20-40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한국염, 1999). 피해 횟수도 한 번의 피해가 아니라 1-2년 정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20년 동안 성폭력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 내 성폭력의 93%는 목회자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호숙, 2012). 이러한 통계는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대책이 주로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귀남(2006:9-18)은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목회자가 결혼이나 안수기도를 빙자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음란 마귀를 쫓아내어야 한다고 여성 성도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유혹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유혹하여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여성 성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하면서 성폭행을 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여성 성도의 가정에 침방을 가서 성폭행을 자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불우한 처지에 처한 학생을 돌보아 주면서, 혹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을 선교사가 추행하기도 하고, 홀로 사는 여성 성도를 상담해 준다고 불러내어 모텔에서 성폭행하여 임신케 하는 등 다양한 사례의 성폭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목회자의 성폭력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여성 성도가 목회자를 성적으로 유혹한다기보다는 목회자가 성폭력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목회자 혼자서 여성 성도의 가정에 침방을 가거나 안수기도를 할 때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목회자가 영적인 권위를 이용하거나, 왜곡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Child Grooming) 성폭력이 폭로된 바 있는데, 이는 성장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행태는 목회자의 자질(인성, 영성, 소명, 본능

적 욕구의 절제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육 기관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목회자 자질 향상을 위한 범교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후유증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는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대인관계 등 전 인격에 걸쳐 깊은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채규만, 2000). 또한 성폭력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한 절망감과 수치심, 죄책감 피해의식을 느낀 나머지, 결과적으로 조현증, 강박증,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에 이르게 하며,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윤수경, 2015). 특히 교회 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 사회에서의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빠져 급기야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한다(정희성, 2013). 둘째, 목회자 자신과 가정의 파괴이다. 목회자의 성폭력은 우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명백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며,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목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치명적으로 파괴한다. 가해자인 목회자 본인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아내와 자녀들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에서 충격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파괴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 대부분 목회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면서 교회적으로 시험에 들게 된다. 교인들은 가해자인 목회자와 피해자인 성도를 옹호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분란에 휘말리게 된다(윤귀남, 2006). 가해자인 목회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교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진정으로 교회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는 길은 목

회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법적 공방으로 지루하게 이어지게 될 경우 급기야 교회가 갈라지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목회자의 성폭력은 피해자와 자신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강호숙, 2012).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매스컴을 통해서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 부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목회자 성폭력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범교단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 2. 목회자 성폭력 원인

최인섭과 김성언(1998:33)은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입장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설명 방식을 취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전자는 성폭력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지만, 구조주의적이고 문화적인 설명방식은 개인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는 달리 성폭력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개인, 가족, 집단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정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Poling, 199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목회자의 세속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 성도를 대상으로 성적 일탈을 보인다면 이는 목회자가 세속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속주의는 타락한 세

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좇아가는 것이다(Mahaney, 2008). 또한 세속주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갈망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다(Murray, 2000). 이러한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인간의 마음인데, 마음은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선 또는 악에 대한 경향성의 중심이다(Frame, 2011).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속주의의 본질은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적 일탈에 빠지거나 성폭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목회자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욕구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러한 욕구를 죄를 짓는 곳에 잘못 사용하거나, 때로 그러한 욕구가 과도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이상숭배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세속주의는 자신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세속주의적인 목회자는 영적으로 거룩함을 위해 깨어있는 목회자와는 달리 성적 유혹이나 성적 일탈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적인 개방, 성의 오남용, 음란물, 인터넷, 향응 문화가 범람하는 사회 문화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려면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 2) 목회자의 심리적 요인

성적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생물학적 관점, 정신역동적 관점, 학습이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등이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 의하면 성충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수준이 높을 때 성적 일탈이 가속화된다

고 한다. 그러나 성적 일탈자 가운데는 낮은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준에도 불구하고 성적 일탈의 행동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성적 일탈을 외디푸스컴플렉스(Oedipus Complex)의 미해결과 아동기의 성적 고착의 퇴행으로 설명하며, 사회학습이론의 입장에서는 이성애 기술의 획득에 성공하면 일탈적 성행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실패하거나 애매할 경우 성적 일탈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성적 일탈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전대양, 1998).

목회자의 성폭력 원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목회자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론의 범주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이외에도 일반 남성으로써 목회자의 성적 일탈을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이다. 성폭력에 연루된 목회자는 대체로 원가족(family-origin)의 역기능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을 수 있다(백광훈, 2017). 목회자가 원가족인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관심과 애정, 칭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러한 충족되지 못한 강한 욕구들이 목회라는 대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특히 원가족과 안정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라면, 결핍된 애정의 욕구를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성도들에게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성격적 특성이다. 목회자의 성적 일탈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다(Brewster, 1996). 자기애성 성향의 목회자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타인이 상처 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 일탈을 하는 목회자는 심리 내면적으로 감정적 결핍과 의존성을 갖고 있다(박성자, 2007). 여기에 목회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좌절감

과 낮은 자존감이 작용하게 되면, 그런 목회자는 성적 일탈과 같은 엉뚱한 곳에서 인정의 욕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Grenz & Bell, 1995). 이밖에 목회자가 과도한 업무로 탈진하거나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건강하게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성적 탈선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삶에서 성적 만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과 성(性)적인 만족을 괴리시켜서는 안 된다(하재성, 2012). 만약 목회자가 결혼생활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서 성적 일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즉, 목회자가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성적 탈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Thoburn & Whiteman, 2004). 특히 목회자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남편은 아내가 아닌 매력적인 여성 성도에게 친밀감이 전이될 수 있다(Grenz & Bell, 1995). 남성 목회자가 부부간의 문제로 외롭고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여성 성도가 사적인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여 잦은 만남을 갖게 되면 탈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목회자 부부가 성적 친밀감에 거리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목회자 부부의 성(性)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금욕주의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성도덕이 매우 강력했지만, 오히려 당시 성직자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 이는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성적 욕구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성적 탈선에 빠져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금욕적인 성도덕이나 성(性)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익숙한 목회자 부부들은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뉴스앤조이, 2012). 즉, 성(性)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건강한 인식과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잘 표현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성(性)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가부장적 교회구조와 영적권위의 남용

인간의 성적 욕구는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성적 쾌락을 얻는 것보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탈하려는 권력 추구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하재성, 2012).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회자와 여성 성도간의 성적 탈선에는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가부장적 사고에 깊이 젖은 목회자일수록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남용하여(오명선, 2006). 여성 성도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즉, 성직자의 성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며(Robinson, 2011),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의 문제는 참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악용한 사건의 성격이 훨씬 크다(Camp, 2009). 미국 장로교 역시 목회자의 성적 일탈은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기독교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며, 설령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의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김애희, 2016). 강호숙도 목회자 성범죄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요인은 교회 내 권력구조라고 보았다(오마이뉴스, 2018.11.23). 만민중앙교회 L 목사가 여성 성도를 유혹하여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은 철저히 가부장적이면서도 영적 권위와 완력으로 성폭행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래와 같다.

만민중앙교회 성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목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목사가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는 이 목사가 혼자 있었으며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성(性)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전 너무 어렸고 남성 경험도 없었다. 이 목사는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폭로했다(미디어펜, 2018.4.11). A씨는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관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길 줄 알고,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L 목사가)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

지 않았냐....(너도) 벗으면 된다고...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라고 했다(오마이뉴스, 2018.11.23).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 목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게 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았다(오마이뉴스, 2018.11.12.). 이 사건은 영적 권위를 남용하여 담임목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여성 성도를 대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시대는 한국교회 초기에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목회자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시대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성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김순환, 2009). 그러므로 목회자는 영적인 권위는 갖되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버리고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 성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4) 성경의 자의적 해석과 오용

성경에는 가부장적 억압으로 성폭력을 행했던 내용들이 있는가하면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특별하게 표현한 곳도 많이 있다. 이경숙(1991:7-18)은 성폭력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남성은 이혼할 권리가 있으나 여성은 없다(신 24:1-4). 둘째,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인식했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출 20:17, 신 5:21), 여성과 아이들은 인구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출 12:37). 셋째, 여성을 성적인 도구이자 아이를 낳는 기계로 볼 수 있는 성경도 있다(민 31:15-18, 신 25:5-10). 이러한 구약성경은 여성을 여러 측면에서 비인간화하여 억압할 뿐 아니라, 성폭력의 희생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성억압과 성폭력의 사건들을 비판하고, 여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Gerstenberger, 1988). 예언서에 나타난 중말론적 기대에 의하면, 그 때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같이 하나님의 영을 입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했다(을 2:28-30). 성윤리에 대한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조차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며(창 1:27, 2:21-24),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예수를 통하여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는 절대적인 목회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도를 유혹하고, 자신의 성폭력을 합리화하기도 한다(노순동, 2003).

성폭력 목회자가 자신의 성적 일탈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곱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듯이, 너도 라헬처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둘째,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너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쳐라.” 셋째, “에덴동산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넷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었듯이, 너는 나를 돕는 배필이다. 배우자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성경의 해석이 교회 바깥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여기는 절대적인 신뢰관계에서는 쉽게 거역하기 어려운 논리가 되기도 한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과 오용은 목회자가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5) 기독교 윤리 덕목의 왜곡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고 은폐시키는 데에는 기독교가 이상화한 윤리적 덕목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된다(이현숙, 1992). 십자가와

고난, 희생적 사랑, 겸손, 은유, 용서, 화해, 인내, 봉사, 순종, 고통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등의 다양한 성경적 덕목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희생되는 일에 교회가 공헌했다(Imbens & Jonker, 1992). 이러한 덕목들이 여성들에게 강요되어서, 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라는 식의 신앙적 가르침과 교육을 받게 된다. 목회자 성폭력과 관련해 특히 ‘용서’라는 덕목이 남용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눅 23:34)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마 18:21-22)은 피해 여성들에게 많이 강요된 전형들이다(이현숙, 1992).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용서의 강요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Eichler & Müllner, 2001). 폭력을 행사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그와 같은 성폭력의 재발을 강화시킬 뿐이다.

O목사는 K전도사를 두 번이나 낙태하게 한 후 그 일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자,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였다. 죄를 고백하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히 목사직을 그만 두어야하는데도 오히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 받았으므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교했다(한국염, 1999:25)

위 사례에서 O목사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용서를 왜곡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범죄이다. 다윗이 범죄 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왕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심판을 받았

다.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윗이 회개한 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초기부터 성직자의 탁월한 윤리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김순환, 2009). 목회자는 세속의 직업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직책이므로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는 기독교의 윤리적 가치와 덕목들을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강조하여 여성을 더욱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고리를 끊고 여성을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독교 윤리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 6) 교단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법령 미비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는 말씀처럼 성범죄에 대한 예수의 인식은 매우 단호했다. 예수는 음욕을 품은 시점부터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사회법보다는 예수의 법이 훨씬 더 엄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이 만연하다(오마이뉴스, 2018.11.23).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폭력을 일으킨 목회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런가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나 이단으로 몰아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3차의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년 불거진 삼일교회 J 담임목사의 사례이다.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예장 합동 측 평양노회는 6년을 지연시키다가 2016년 결국 2개월의 설교정지와 2년간 공직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에 대해 강호숙은 현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 은닉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이뉴스투데이, 2017.

1.17). 그 일례로 삼일교회 J 목사의 사건의 마무리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것은 결국 교단적인 무관심과 방관이라고 볼 수 있다(권최연정, 2017). 이러한 교단의 묵인과 방조 때문에 목회자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2018년 5월 23일 수원교구 소속 한 여성 성도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선교활동에 함께 한 H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일을 폭로했다. 이에 수원교구는 이를 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H 신부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주임 신부 직책을 박탈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교구장으로서 사제단을 잘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온 피해 자매님과 가족, 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세계일보, 2018.2.25). 더 나아가 그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고 여성 인권과 품위를 존중하는 문화와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교구와 평양노회가 성직자의 성적 일탈이라는 유사한 사건을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 두 사례가 천주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수원교구에서는 교구장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사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둘째, 수원교구는 한 성도의 폭로 후 이를 만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삼일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셋째, 수원교구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을 가지고도 신부직을 박탈하는 최고의 징계를 했다. 반면에 평양노회에서는 성폭력이 연루된 목회자에 대해 설교정지 2개월과 2년간의 공직정지 처분을 내렸다. 넷째, 신부의 경우는 7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으나, 목사의 경우는 증거가 있어도 법정

에서조차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여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모습은 곧 그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종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CBS 노컷뉴스(2014.2.6)에 의하면 2013년에 기독교운 리실천운동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같은 낮은 신뢰도는 종교 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비기독교인 가운데 47%는 천주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불교 38%, 개신교 12.5% 순이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자연스럽게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선호도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범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교단적으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목회자 성폭력 방지 대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성폭력 피해자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 제정, 성폭력 목회자의 파면, 성폭력예방지침서 제작과 교육,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염, 2016). 그리고 교회 내 모든 성폭력 진상 규명과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호숙은 목회자 성폭력 방지를 위해 목사 후보생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신학교와 교단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성범죄 데이터베이스 범교단적 공유 등을 주장했다(이뉴스투데이, 2017). 미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교단의 경우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교사나 봉사자들도 신원조회를 통해 사전에 성 범죄자를 거르고 있다(현수

철, 2016). 이에 연구자는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방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영성적 측면: 성결성의 유지

윤리학자 Rebecah Miles(1999:107-108)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행위는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성직자가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깨어 있을 때이다”라고 했다. 성적 범죄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딤후 5:1-2). 하나님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벧전 1:16),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엡 5:3). 이러한 성결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Dunning, 2018).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목회자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결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태해지게 되면, 다윗처럼 순간의 유혹에 빠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목회자의 성결성은 목회자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위해 목회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도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기규례를 가졌듯이,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목회자 윤리강령’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 성윤리의

범위는 결혼과 이혼, 성폭력, 동성애, 임신과 피임, 독신, 낙태, 출산 과 양육 등 인간실존의 모든 국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강호숙, 201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 성폭력과 관련된 윤리강령에만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은 100회 총회(2015.9.17.)에서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했는데, 그 중에 목회자의 성윤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
- ② 나는 자신의 성적 자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
- ③ 나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교회 내 사역자 관계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
- ④ 나는 사역에 필요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대인관계의 건강한 경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다.
- ⑤ 나는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갖는다.
- ⑥ 나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 회중에, 더 나아가 사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처럼 교단적으로 ‘목회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목회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교육적 측면: 대상자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비기독교 사회에서 보다 기독교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기독교 사회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과 잘못된 종교교육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Eichler & Müllner, 2001). 이는 곧 교회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5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러한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대상은 목회자 후보생과 목회자 및 성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목회자 후보생 신학교육 강화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 신학교육이므로, 이 시기에 성적 탈선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다(하재성, 2012). 감리교의 경우 목회자는 안수과정에서 준회원이 될 때 서류에서 건강검진 및 인성교육에 대한 성격검사 자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성(性)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홍보영, 2018:4-23). 지금까지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을 방관하거나, 세상 밖으로 목회자의 성폭력이 노출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가르쳐 온 기독교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성서해석이나 신학적 교훈을 그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비록 성폭력 가해자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신학대학원 과정(M.Div.)에 '목회자 성윤리'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쳐야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이연정, 2016)의 설문에 응답한 17개교의 신학교 가운데, 성윤리 등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6개 신학교였으며, 여성 사상사나 젠더 관련 교육이 정규 강좌로 개설된 학교는 3개교

에 불과했다. 연구자가 현재 군중장교(군목)를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의 11개 신학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교과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은 ‘양성평등과 교역’ 과 ‘책임윤리’ 과목이,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은 ‘기독교윤리와 사회정의’ 및 ‘종교와 폭력’ 과목이,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은 ‘현대교회와 윤리문제’ 과목이, 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은 ‘목회윤리/사회윤리’ 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7개 신학대학원은 주로 목회상담학이나 기독교윤리 정도만 개설되어 있는 정도이다. 특히 ‘목회자의 성윤리’ 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전무했다. 목회자의 성관련 교육 내용으로는 통합적이고 건강한 성의 신학과 윤리정립, 목회자 후보생의 심리치료를 포함한 다각적인 교육과 상담, 직업윤리, 교회 내 양성평등의 문제 인식, 목회자 성(性) 정체성 함양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백광훈, 2017). 특히 ‘목회자의 성윤리’ 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윤리학이나 목회상담학의 과목에 포함시켜서 교육할 수 없다면,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특강이나 세미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②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회 역사를 볼 때 성폭력을 행사한 목회자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죄의 특성상, 목회자의 성범죄는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홍인중, 2018). 그러나, 교단과 노회는 성폭력을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의 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며, 다시는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성결성 회복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영성훈련이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유혹에 넘어질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회자의 건강한 성(性)인식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신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학적, 윤리적, 법적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 성폭력 방지법에 대한 사회법과 교단헌법이 제정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 성폭력의 실태(사례)와 문제점 및 영향력에 대한 현실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과 예방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행동강령(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안수기도와 상담, 심방 수칙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다. 여섯째,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하여 목회자 자신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교회 내 성폭력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동 절차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 여덟째,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과 관련된 고민사항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멘토나 심리 상담기관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목회자의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한 교육이나 성클리닉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목회자 후보생 때부터, 현장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교단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③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정숙자, 1999). 교인들 중에는 다윗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목사도 용서하신다는 인식으로 목회자의 성폭행을 덮고자 한다. 그런가하면, 어떤 여성 성도는 자신이 목회자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미혼인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침묵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권최연정, 2017).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과 침묵이 목회자 성폭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목회자의

성적 일탈을 거부하고, 신고하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정숙자(1999:24-30)는 여성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며, “목사 바로 알기 10계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목사도 일반 남성과 같이 사적인 감정과 사랑을 느끼므로 거리를 두고, 특히 부인과 불화관계에 있는 목사를 조심하라고 했다. 또한 남성 목사도 여성 앞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주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더 신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담임목사가 직접 이러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소속 교단에서 파송된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목회자)나 목회상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3) 목회상담적 측면

목회자의 자원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성도들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자원이다(이충범, 2014)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에 관한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경험적 지식도 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목회상담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다음과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해자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성적 일탈이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한 법적 예방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목사들이 공식적

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 회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비록 성적 탈선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목회자가 행한 성적 탈선의 유형과 그 파급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약 의도적이나 습관적으로 성적 일탈을 했다면, 영구적으로 목회직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백광훈, 2017). 이관직은 “한국교회는 목회자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범교단, 범교파적으로 연대하여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확보하고, 처벌 없이 교회나 교단을 옮김으로써 이를 회피하려는 목회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마이뉴스, 2007.4.20.).

성적으로 탈선한 목회자는 심리 정서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부정한 성관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와 진실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성적 탈선을 행한 목회자가 새롭게 사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Lahaye, 2006). 첫째, 목회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영적인 생활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가정생활이 갱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 둘 경우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목회자가 결정되면 회복과 재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담임 목회를 계속하기보다는 기독교 관련 기관의 사역이나 부목사, 특수 목회 혹은 목회자가 부족한 농촌 교회 같은 곳에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자신을 감독하고 지도해 줄 사람을 자청해야 한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부름 받았던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저지르는 큰 범죄이다. 반복적인 성적 일탈과 범죄는 곧 중독

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회복 방안

성폭력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서,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전 인격에 걸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경험한다(채규만, 2000).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는 또 하나의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재, 상실, 무능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와 회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Poling, 1991). 또한 이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영성의 회복을 위한 목회상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김미경, 2015). 일제시대 군위안부로 끌려가 술한 성폭력을 경험한 길원옥은 자신의 치유에 직접 관계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정희성, 2011). 성령 하나님만이 피해자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성령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 삶의 모든 모순을 품으시면서 사랑의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목회 돌봄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남성목회자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상담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최명관, 1997).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목회자가 평신도 상담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전요섭, 2004). 또한 교회나 교단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정상적인 개인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쉼터 사역, 회복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홍인중, 2018). 교회공동체는 상처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들의 치유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③ 기독교성상담센터와 목회자 부부 성클리닉 운영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고통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센터를 찾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받기 위해 심리 상담센터를 찾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성폭력 가해자인 목회자가 자신의 그릇된 성문제와 관련된 장애나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목회자가 성(性)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신본 특성상 성(性)에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일반 상담센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性)적인 문제를 은밀하게 덮어둘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회자의 인식의 전환이다. 더 나아가 목회자 자신이나 혹은 목회자 부부가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목회)심리상담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범교단적으로나 혹은 각 교단 지방회(노회)의 연합회 차원에서 기독교성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기독교(목회)상담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인 목회자도 심리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범죄로 인정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존경받는 교회지도자들과 상담전문가들로 구성)와의 상담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일정한 회복 기간 동안 충분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홍인중, 2018). 이는 목회자 본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제도적 측면: 교단의 법령 제정과 엄격한 법집행

목회자의 성적 범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하고 양떼를 약탈하는 비도적적이고 반목회적인 행위이므로 강력하면서도 명문화된 법이 있어야 한다(하재성, 2012). 미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 교단들의 성범죄 정책에 대해 성범죄 피해신고·상담접수 기관 운영, 성범죄 목회자 강력 처벌, 피해자 구제 과정의 조력자 역할 등의 공통점이 있다(이뉴스투데이, 2017.1.17.). 미국 감리교나 장로교의 지침에는 교회 내 성폭력이나 성적 일탈은 모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보통 정리된다(정희성, 2015).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성폭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반대파와 심각하게 갈등을 하거나, 심지어 가해 목회자가 진정할 회개도 없이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할 경우 그 목회자를 따라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법에 성윤리 규범과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문제를 일으킨 목회자가 성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강호숙, 2012). 그러나, 최근 일부 교단에서 목회자 성폭력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2017년 9월 102회 총회 때 ‘목회자 및 교회 직원 성적 일탈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이 통과되었고(홍인중, 2018), 103회 정기총회에서헌법위원회는 목사의 무흠 자격에 ‘성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했을 경우 복지하기 위해서는 7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는 문구를 단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한국교회 교단법에서 목사 자격과 복지 내용에 ‘성폭력’ 이 들어간 것은 이번 예장통합 총회가 처음이다(당촌교회 카페, 2018). 대한성공회는 2016년에 ‘성직자와 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했고, 2018년부터 전국성직자 신학연수에서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최근 성범죄 관련 목회자를 처벌하는 청원안을 통과시키고, 「교회성폭력 매뉴얼」을 교회에 공급하고 비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윤리 강령' 등 법과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단 내 양성평등위원회와 교사위원회가 함께 성윤리 강령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리 제 10조 성결 정신에 근거하여 교단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강력한 법적 조항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 목회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단 정책 마련에 Cooper-White(2012:166-167)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 내 성폭력의 만연함에 대한 인식과 신학적 근거를 통한 정책의 필요성
- ② 목회자 성폭력, 성적비행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모두' 목회자에 있다는 명확한 인식
- ③ 목회자와 평성도 지도자들에 대한 강제 훈련 규정 및 정기적 교육의 요구
- ④ 성폭력이나 비행이 일어난 교회에 대한 조사, 진행, 치유를 위한 고정된 프로그램과 배신감에서 치유 받아야하는 교인을 위한 '중간 목사' 나 '후임 목사'에 대한 특별한 훈련
- ⑤ 피해자의 회복 지원 과정이나 정책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보다 정의를 추구할 것
- ⑥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 명칭,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책과 징직 등을 포함하는 명백한 결과물, 치료 과정과 종결에 대한 평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 ⑦ 가해자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재교육, 재사회화를 포함하는 결론, 목회자 성적비행, 성폭력 전문치료자와의 공조 속에 교회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찰
- ⑧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나 교회 매체에 교회내 성폭력 신고에 관한 모든 과정과 정책의  
출판

- ⑨ 교인에 대한 발표를 위한 표준화 과
- ⑩ 모든 정책과 과정이 교단과 소속 교인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임을 약속하는 교단적 위탁

김병규 변호사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종교인 성폭력 범죄는 종교인과 신자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인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발생하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 2016.12.24.).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할 목회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목회자 스스로 거룩한 영성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라고 해결해야 하겠다는 교계 지도자의 실천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칠 수 있겠는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 Ⅲ. 닫는 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性)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이에, 목회자 성폭력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성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성폭행 사건의 노출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덮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덮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방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러한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더욱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일탈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목회자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독교계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홍보연(2018:8-23)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교회인가? 성경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해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성폭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하게 하는 일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변명하고 발뺌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라고 묻는다. 어느 한 목회자는 “성폭력을 통해 여성 성도의 신앙을 잃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과연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성경에 ‘간음’은 명백히 중죄이다”라며 “목사의 성폭력이 드러났음에도 방관하고 처벌하지 않는 교단도 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에 일부 교단에서 목회자의 성폭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교단적으로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는 결국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실인식과 영성 그리고 교회 내 목회자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목회자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각 요인별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성폭력 목회자의 심리 정서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목회자 후보생, 목회자, 교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상별 성폭력 교육 세부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성(性)인식 연구를 근거로 교단적으로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목회자 성폭력을 목회상담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강호숙 (2012).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 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26(3), 172-201.
- 권최연정 (2017).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 25-48.
- 김상임 (2003).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 해설. *한국여성신학*, 53, 100-106.
- 김미경 (2015).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1), 75-101.
- 김순환 (2009). 21 세기의 목회와 윤리. *복음과 실천신학*, 19 (1), 9-37.
- 김애희 (2016). 교회 성폭력, 이제 교회가 응답할 때.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최 포럼 자료집*, 21.
- 노순동 (2003). 신의 이름 더럽힌 성역 없는 성폭행. [www.sisapress.com](http://www.sisapress.com), 715, 42.
- 박성자 (2007). 성적 일탈 성직자의 심층적 심리탐구. *한국여성신학*, 65(2), 22-40.
- 백광훈 (2017). 목회자의 성적 일탈과 목회 윤리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 269-297.
- 오명선 (2006). 권력사용 및 이에 대한 성경적 원칙. *복음과 실천신학*, 11, 389-92.
- 윤귀남 (2006). 교회 내의 성폭력. *한국여성신학*, 64, 9-18.
- 윤수경 (2015). 성폭력 피해 후유증 경험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131-186.
- 이경숙 (1991).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폭력과 여성옹호. *기독교사상*, 35(5), 7-18.
- 이연정 편집 (2016). 목회자의 성윤리 어떻게 다뤄야하나?: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의 현실과 방향성 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8-11.
- 이충범 (2014). 성폭력 생존자의 치유와 인격회복을 위한 목회: 신학적 대응. *인격교육*, 8(3), 152-169.
- 이현숙 (1992). 기독교와 성폭력. *한국여성신학*, 12, 24-38.
- 전대양 (1998). 성적 일탈과 성범죄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35(9), 181-219.
- 전요섭 (2004).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복음과 상담*, 2, 10-39.

- 정숙자 (1999).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학적 분석. *한국여성신학*, 36, 24-30.
- 정희성 (2011). *여성과 목회상담*. 서울: 이화여성대학교출판부.
- 정희성 (2013). 성폭력 트라우마와 성령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1), 293-318.
- 정희성 (2015). 목회자의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장신논단*, 47(4), 225-250.
- 채규만 (2000). *성 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최명관 (1997).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교회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신학*, 30, 54-64.
- 최인섭, 김성언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염 (1999).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기독교사상*, 481(1): 222-223.
- 한국염 (2016).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정병오(편).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25, 자료집.
- 하재성 (2012).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자원. *복음과 상담*, 19, 270-295.
- 현수철 (2016). 성문제 예방과 안전한 교회 만들기.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11, 176-179.
- 홍보연 (2018). 미투운동은 폭력적 풍토를 바꾸는 연대의 행동입니다. GN커뮤니케이션. *복음과 상황*, 329(4), 8-23.
- 홍인중 (2018).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필요성의 이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지도자 세미나. 예장통합 자료집.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New York: John Wiley & Sons, 287.
- Brewster, A. (1996). Clergy Sexual Misconduct: The Affair Everyone Remembers. *Pastoral Psychology* 44, 354.
- Camp, K. (2009). Study Finds Clergy Sexual Misconduct Widespread. *Christian Century*, Oct, 14.
- Cooper-White, P. (2012).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s Response*. 2n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66-167.
- Dunning, H. R. (2018). *성결의 바른 이해(최종대 역, The Holy Way)*, 익산: 한국성서성결운동본부.(원전 1991 출판).

- Eichler, U., & Müllner, I. (2001). **깨어진 침묵**(김상임 역, *Sexuelle Gewalt gegen Mädchen und frauen als thema der feministischen theologie*). 서울: 여성신학사, (원전 1999 출판).
- Frame J. M. (2011). **조직신학 개론**(김영준 역,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미국 뉴저지: P&R. (원전 2006 출판).
- Gerstenberger, E. S. (1988). *Jahwe –ein Patriarchaler Gott?*. Stuttgart: Kohlhammer, 136–64 ; Letty, M. R, *Human liberation in a Feminist Perspective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Grenz, S. J., & Bell, R. (1995). *Betrayal of Trust: Confronting and Preventing Clergy Sexual Misconduct*, Downers Grove: IVP.
- Imbens, A., & Jonker, I. (1992). *Christianity and Incest*, P. McVay, (Tr.). Minneapolis: Fortress Press.
- LaHaye, T. (2006). **목회자가 타락하면**(황승균 역,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서울: 생명의 샘. (원전 1990년 출판).
- Mahaney, C. J. (2010). **세속주의를 경계하라**(소행선 역, *Resisting the Seduction of a Fallen World*).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8 출판).
- Miles, R. L. (1999).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 Murray, I. (2000). *Evangelicalism Divided: A Record of Crucial Change in the Years to 2000*. Carlisle. PA: Banner of Truth, 255.
- Poling, J. N. (1991).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Nashville: Abingdon Press.
- Robinson, G. (2011). **성, 권력, 교회**(최문희 역, *Confronting Power and Sex in the Catholic Church*). 서울: 분도 출판사. (원전 2008년 출판).
- Thoburn, J., & Whitman, D. (2004). Clergy Affairs: Emotional Investment, Longevity of Relationship and Affair Partners. *Pastoral Psychology*, 52, 491–506.
- 이뉴스투데이 (2017.1.17). 기획: 한국교회 문제 진단 ① 목회자 성범죄로 무너지는 한국교회..부패, 타락 극명, 개혁은 먼 길. <http://www.ewestoday.co.kr>에서 2018년 12월 12일 인출.
- 문화선교연구원 (2017.12.19.). 한국기독교 선정 2017년 분야별 10대 이슈. <http://www.cricum.org>에서 2018년 12월 14일 인출.
- 미디어 펜 (2018.4.11.). 20대 여성 성도들 성폭행 의혹. <http://www.mediapen.com>에서 2018년 12월 14일 인출

- 연합뉴스 (2018.11.6).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https://www.dispatch.co.kr>에서 2018년 12월 14일 인출.
- CBS 노컷 뉴스 (2014.2.6). 한국종교선호도 조사, <http://blog.daum.net/gongstory/44>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교회개혁실천연대 (2015.6.2.).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교회 내 성폭력의 현실을. <http://www.protest2002.org>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당춘교회 카페 (2018.9.15). 통합 총회 마무리..올해 결정된 別別이슈. <http://cafe.daum.net/dangchun>에서 2018년 12월 5일 인출.
- 세계일보 (2016.12.24.). 종교인 성폭력 범죄 어떻게? <http://news.zum.com>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세계일보 (2018.2.25). 천주교 수원교구, 여성성도 성 추문에 진심으로 사죄. <http://v240.segye.com>에서 2018년 12월 15일에 인출.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공공기관종사자). <http://www.mogef.go>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07.4.20). 교회 내 성폭력에 침묵하는 교단들. <http://blog.daum.net>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18.11.12). 성령이라는 이재록을 위해, 그들은 날 계속 죽였다. <http://www.ohmynews.com>에 2018년 12월 15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18.11.23). 이재록 목사 실형 등 빈발하는 목회자 성범죄, 대책은? <http://www.ohmynews.com>. 2018년 12월 15일 인출.
- 한국염 (2016.12.24). 종교인 성폭력 범죄 어떻게? <http://news.zum.com/article>에서 2018년 12월 15일 인출.

【 Abstract 】

## Causes of Sexual Violence of Pastors and Preventive Measures

**Park, Kiyong**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auses of sexual Violence of Pastors and Preventive Measures so leaders of christian churches of Korea could acknowledge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and take part in actual actions. The sexual violence and abuse of pastors are at the core of the corruption and graft of christian churches of Korea. Therefore, the author has analyzed the causes of sexual violence of pastors and preventive measures. First, the author addressed the reality of sexual abuse by pastors and its aftereffects. In this paper, the author claims that psychological factors of pastors, patriarchal church structure, abuse of spiritual authority,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misuse of the Bible, distortion of moral virtues of Christianity, practice of a church of protecting it own people, lack of regulations and laws, and others are attributable to pastors' sexual abuse. As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of pastors, the author suggests various options in detail under 4 aspects: spiritual, educational, pasto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truly hoped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pastors, so that it will not only prevent the sexual abuse of pastors in the church, but als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holiness of christian churches in Korea.

**Key words:** p astors, sexual abuse, sexual abuse of pastors, causes of sexual abus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Abuse